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본단 <쇼! 주부환상 특급>의 '미세스 코리아 선발대회'. 주부마저 눈요기 감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93.8.11

주부들 대상 주말 TV프로 '가정'만 있고 '여성'이 없다

패션·요리 등 주류 사회적욕구·관심 외면

텔레비전 방송3사가 토요일 아침시간대에 중점 방영하는 주부대상 프로그램들이 주부들의 의식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낭비와 겉모양 내기에 치우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3사의 주말 주부대상 프로그램들은 한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패션, 화장, 집 꾸미기, 요리 등에 한정되어 있다.

현재 토요일 아침시간대에 방영되는 주부대상 프로그램은 <한국방송공사> 제1텔레비전의 <독점 여성정보>, 제2텔레비전의 <아침마당 주부청문회>, <문화방송>의 <아름다운 여자> <현장체험 주부탐사> <선택! 토요일이 좋다> <쇼! 주부환상 특급>, <서울방송>의 <생방송 행복찾기> <주부만세>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토론의 형태로 엮는 <아침마당 주부청문회>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화장법, 머리 손질법, 옷 잘입는 법, 별미 만들기, 집안 꾸미기,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하는 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생방송 행복찾기>는 '영상편지' '부부영상앨범' '앙코르 결혼식' 등의 코너들을 통해 주부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메

'여성의 행복은 가정'이라는 구호를 내건 <주부만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직장에서 근무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여보, 저예요' 코너에서 주부들이 남편으로부터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를 잘한다는 칭찬 또는 외식 약속을 받아내고는 '만세'를 외쳐 보는 사람을 민망하게 한다.

<주부만세>와 같은 시간대에 방영되는 <쇼! 주부환상 특급>은 주부를 상품화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꼽힐 만하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격인 '미세스 코리아 선발대회' 코너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그대로 흉내 낸 것으로, 화려한 드레스와 노출이 심한 평상복을 입은 주부들이 남편의 손을 잡고 입장해 미모를 겨뤄 "주부까지도 눈요기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밖에 <독점 여성정보> <아름다운 여자>는 화장 잘하는 법, 옷 잘입는 법, 특별식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주부층 시청자의 흥미에 영합하려는 듯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주부들의 반응은 그러나 상당히 냉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민우회 산하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이 최근 수도권에 사는 20~40대 주부 2백56명을 대상으로

'주말 아침시간대 주부대상 프로그램 시청행태'를 조사한 결과, 17.8%만이 주부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해 이들 프로그램들이 정작 주부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8.1%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여성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프로그램'을 꼽아 주부대상 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 언론을 지키는 모임'의 임해선 대표는 "주부대상 프로그램들이 주부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방송사들이 주부들의 의식과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의의 '매스컴 모니터모임'을 이끌고 있는 오혜란 부장도 "방송사들이 주부들의 관심을 남편에게 잘 보이기만으로 상정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자 여성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요즘 주부들의 관심영역이 사회, 정치, 경제,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 주부들의 의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크게 바꿀 것"을 촉구했다.

신연숙 기자